

KOSME

이슈포커스
2023-1호

「중소벤처기업 수출 동향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2023. 03 |

KOSME
이슈포커스

동향조사 요약 4

01 중소기업 수출 동향조사 개요 6

02 중소기업 수출 동향조사 세부 내용 8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8

수출 동향 조사 결과 12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책 수요 조사 결과 19

03 정책적 시사점 23

산업별 수출동향 및 현장사례 27

「중소벤처기업 수출 동향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구분	내 용
<p>①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 중소 경영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21년 동기 대비 '22년 4분기 경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변동 : 증가 40.1% > 감소 39.7% > 변화 없음 20.2% - 수출 변동 : 감소 36.2% > 증가 34.2% > 변화 없음 29.6% - 고용 변동 : 변화 없음 49.5% > 증가 27.7% > 감소 22.8% ◆ 중소기업 40.7%가 기업활동 중 규제 체감, 이들 10곳 중 6곳 정도 (58.4%)가 규제 강도가 높았다고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체감도는 '금융'(40.8%) > '인력'(17.6%) > '환경'(13.6%) > '판로', '안전'(각 4.8%) 순
<p>② 중소 수출 동향 조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수출업체 10곳 중 4곳 이상(44.7%)이 품목 전환 필요, 수출지역 다변화 역시 10곳 중 7곳 이상(73.7%)이 필요하다고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전자제품'(19.1%), '자동차 및 부품'(16.2%), '의료, 정밀·광학 기기'(10.3%) 분야의 수출 품목 전환 수요가 높음 - 수출국 다변화 고려 지역으로는 '북미'(22.3%), '동남아'(19.6%) 'EU'(17.9%), '중국'(11.6%), '일본'과 '중남미', '중동'은 8.0% 수준임 ◆ 중소기업 수출업체 '23년 1분기 수출 여건 절반 이상(50.7%)이 악화 응답, 호전 응답은 10.5% 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여건 악화요인은 '글로벌 수요부진(수출대상국 경기둔화)'이 54.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가격경쟁력 하락'과 '자금 부족'(각 13.0%),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물류난 등)'(10.4%) 순임 ◆ 중소기업 수출업체 절반 이상이 1분기 수출 체감 동향은 모든 측면에서 악화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수출상품 제조원가'(61.8%)와 '물류·운임'(59.9%), '수출대상국 경기'(55.9%) 등의 측면에서 악화 체감 강도가 높음 ◆ 중소기업 수출업체 2분기 수출 전망 예상 역시 '수출상품 제조원가'(50.0%), '수출채산성'(47.4%), '수출단가(상품가격)'와 '물류·운임'(각 46.7%) 등 분야에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전 전망은 '수출상담 및 계약'(15.8%), '수출대상국 경기' (11.2%), '수출상품 제조원가', '물류·운임'(각 9.2%) 등의 측면에서 예상되고 있음
<p>③ 중소벤처기업 정책 수요 - 수출지원사업 정책 수요 조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이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는 정책자금 외에,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12.4%), '제조현장 스마트화·디지털화'(8.1%)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7.5%), '대체조달처 발굴 지원'(6.8%), '원부자재 공급망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4.6%), '구조혁신지원'(3.9%) 순 ◆ 정부 주관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편적 지원'이 28.7%로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다음 '수출지원제도 정보 부족'(26.4%), '수출지원 사업 신청절차 복잡'(15.0%) 등의 순으로 높음

4
정책적
시사점

- ◆ **중소 경영 여건** 분석 결과, 코로나 안정화 등으로 '21년 동기 대비 '22년 4분기 매출액, 수출, 고용이 **점진적 개선** 과정이나, **여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 외부 자금 조달 곤란에 따른 경영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활동 관련 규제애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정책자금 지원, 공급망 대책, 수출지원, 규제개선 중심의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 **중소 수출 동향** 분석 결과,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채산성 하락, 공급망 애로** 등에 의해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수출지역 다변화, 제조현장 스마트화, 공급망, 업종·품목 다각화** 관련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 해외 유망시장 발굴 및 판로지원, 제조현장 스마트화, 핵심원자재 대체조달처 및 국산화 R&D 지원, 물류·통관 지원, 사업전환 관련 정책 지원 집중 필요

[주요 산업별 수출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 SUV·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비중 확대**, 신차 수출 본격화 및 생산차질 완화로 수출 호조세
 - 농업용 초소형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및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셀 케이스 등 친환경차 수출은 호조세인 반면 축소되는 내연차 관련 중소기업 대상 사업전환 집중 지원 필요
-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경기 하락으로 재고조정 본격화 및 출하량 감소, 코로나 이후 고속성장한 비대면경제가 리오프닝에 따른 부진(PC 비대면 수요감소, 모바일 교체 주기 연장, 서버 빅테크기업 투자 연기 등)을 겪으며 수출 감소세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팹리스 기술 확장을 통해 스마트안경, 자동차 HUD 등 신규품목 수주, 실리콘 전극 국산화 및 양산시스템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 메모리반도체 분야 신규 진출 등 자구노력 중인 중소 기술(제품)개발 및 사업전환 지원 필요
- **(이차전지)** 글로벌 배터리 시장 확장 속 3개월 연속 수출 증가,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이온축전지가 성장세를 견인
 -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에 따른 리튬·니켈 등 핵심 원료의 가격변동성에 대한 우려 상존 등 공급망 변화 모니터링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단편적인 위기대응 차원에서 벗어나**,
 - 중소벤처기업이 근본적인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지속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필요**
 -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사업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되어 있는 각 정부부처의 수출지원사업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 필요

01 중소기업 수출 동향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최근 수출 및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 및 수출 동향,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 정책모니터링단 1,000개사
표본규모	◆ 유효응답 기준 총 307개 업체
표본오차	◆ 전체 95% 신뢰수준에서 ±4.66%P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유선, SMS, Email 등 복합조사
조사시기	◆ 2023. 02. 28 ~ 03. 09
자료처리	◆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여 각 항목별 빈도분석, 교차분석 실시
조사기관	◆ (주)케이티씨에스

○ 조사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일반사항	◆ 기업소재지, 매출액, 내수/수출 여부, 수출성장단계 ◆ 종업원 수, 업종, 창업기업 여부, 전통제조업 여부
상시 모니터링 항목	◆ 전년 동기 대비 '22년 4분기 매출액, 수출, 고용 등 변동 정도 및 증가 이유 ◆ 1분기 경영여건, 악화 원인, 기업활동 중 규제경험, 기업규제 체감 강도 ◆ 규제 경험 분야, 현재 필요한 정책 지원
수출 동향 조사 항목	◆ 전반적인 수출 현황 (수출품목, 수출 대상국, 수출 방식, 주된 물류 이용 방식) ◆ 수출 사업전환 필요성, 고려하고 있는 품목, 수출지역 다변화 필요성, 고려하고 있는 지역, 간접수출로 인한 애로사항 ◆ 전년 동기 대비 '23년 1분기 전반적인 수출 여건, 수출 여건 개선/악화 원인 ◆ 전년 동기 대비 '23년 1분기 수출 동향 및 전망, 향후 수출 계획 여부, ◆ 수출 계획 시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책수요	◆ 수출지원사업 인지도, 글로벌 공급망 관련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 ◆ 수출지원정책 관련 애로사항,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 ◆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분야

○ 응답자 특성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전 체	307	100.0	
기업 소재지 지역	서울	33	10.7
	인천/경기	83	27.0
	강원	13	4.2
	대전/세종/충북/충남	33	10.7
	광주/전북/전남	35	11.4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107	34.9
	제주	3	1.0
매출액 (22년도)	5억 미만	17	5.5
	5~10억 미만	22	7.2
	10~50억 미만	111	36.2
	50~100억 미만	66	21.5
	100~300억 미만	72	23.5
	300억 이상	19	6.2
내수/수출 여부	내수기업	155	50.5
	수출기업	152	49.5
수출성장 단계	수출초보(10만불 미만)	56	18.2
	수출유망(10~100만불 미만)	49	16.0
	수출성장(100~500만불)	30	9.8
	수출강소(500만불 이상)	17	5.5
종업원 수	5인 미만	42	13.7
	5~10인 미만	56	18.2
	10~50인 미만	167	54.4
	50~100인 미만	32	10.4
	100인 이상	10	3.3
업종 (중분류)	자동차	29	9.4
	기계 장비	48	15.6
	금속가공	51	16.6
	고무 플라스틱	17	5.5
	전자부품	17	5.5
	전기장비	7	2.3
	화학제품	21	6.8
	식료품	29	9.4
	섬유제품	14	4.6
	정보처리	11	3.6
	기타 제조	40	13.0
	기타 서비스	23	7.5
창업기업 여부	업력 7년 미만	71	23.1
	업력 7년 이상	236	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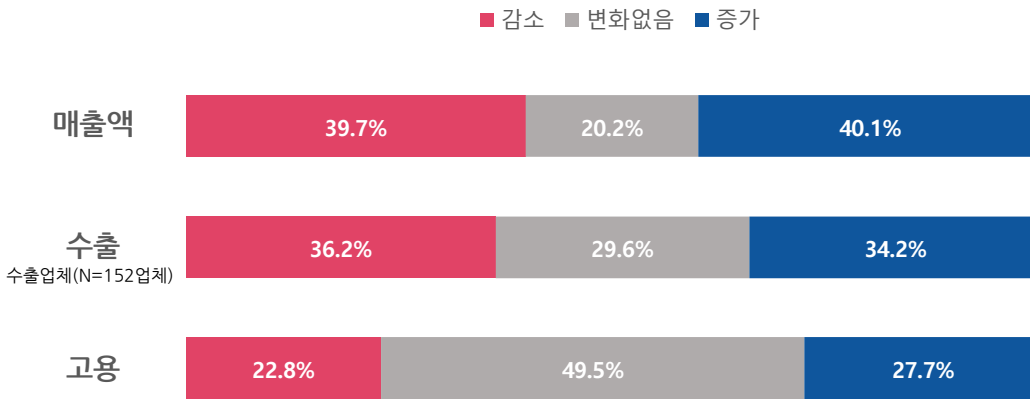
02 | 중소기업 수출여건 및 정책수요 동향조사 세부 내용

1 |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1 | '21년 동기 대비 '22년 4분기 매출액, 수출, 고용 변동

- 응답 기업의 21년 동기 대비 '22년 4분기 매출액, 수출, 고용 변동 결과,
 - 매출액 변동** : 증가 40.1% > 감소 39.7% > 변화 없음 20.2%
 - 수출 변동** : 감소 36.2% > 증가 34.2% > 변화 없음 29.6%
 - 고용 변동** : 변화 없음 49.5% > 증가 27.7% > 감소 22.8%로 파악됨
- 업종별로 매출액, 수출, 고용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 매출액은 자동차(62.1%), 전기장비(57.1%), 정보처리(54.5%)
 - 수출은 고무 플라스틱(60.0%), 자동차(47.1%), 화학제품(38.9%)
 - 고용은 섬유제품(57.1%), 정보처리(45.5%), 전기장비(42.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1년 동기 대비 '22년 4분기 매출액, 수출, 고용 변동 정도 (정책 모니터링단, N=307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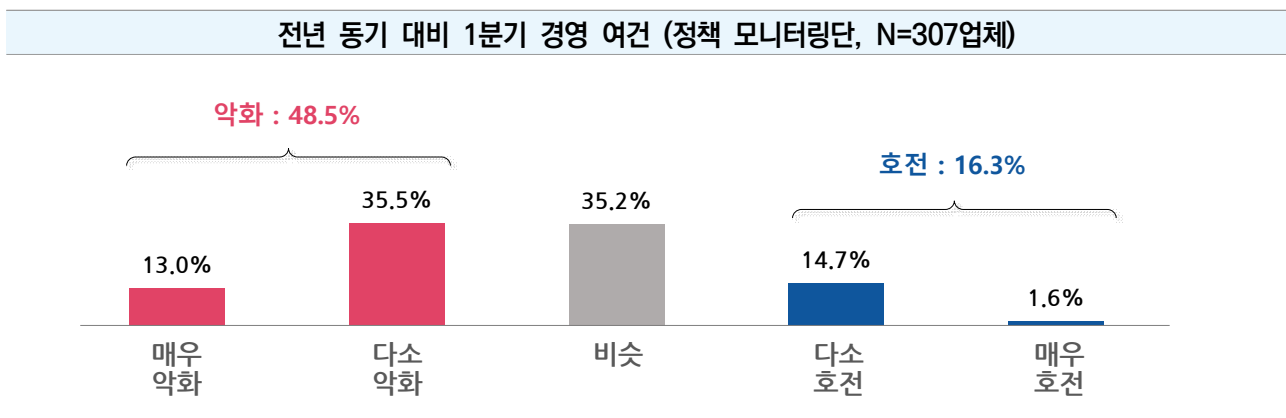
- **매출액 증가 이유**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매출 완화, 거래처, 판매처 증가/ 물량 증가/ 영업으로 수주 확대, 상품 다양화/ 신사업 진출' 등이 주된 이유로 거론 되었으며, **수출 증가 이유**로는 '거래처 확보, 수출 대상국 확대 및 해외 영업 수주 확대, 코로나 완화 등 글로벌 경기회복, 신사업, 신제품 개발 완료 등 제품 다양화' 등이 주된 이유로 언급되고, **고용 증가 이유**로는 '매출 상승으로 인한 인원 충원, 수주/물량 증가 또는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인원 충원, 사업/분야 확장으로 인한 전문인력 충원'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21년 동기 대비 '22년 4분기 매출액, 수출, 고용 증가 이유 (각 증가 응답 기업)*	
매출액 증가 주된 이유 (N=123업체)*	◆ 코로나 안정화 이후 매출 완화 24
	◆ 거래처, 판매처 증가/ 물량 증가/ 영업으로 인한 수주 확대 24
	◆ 상품 다양화/ 신사업 진출 14
	◆ 수출로 인한 매출 증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액 증가 12
	◆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 향상/ 생산라인 증가 10
	◆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8
	◆ 이월 매출 증가/ 선 발주분으로 인한 일시 상승 3
	◆ 업무 효율성 향상 2
	◆ 자동차 생산량 증가 2
	수출 증가 주된 이유 (N=52업체)*
◆ 코로나 완화 등 글로벌 경기 회복 8	
◆ 신사업, 신제품 개발 완료 등 제품 다양화 7	
◆ 화장품, 한국제품 또는 한류 등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성 증가 3	
◆ 첫수출을 시작함 2	
고용 증가 주된 이유 (N=85업체)*	◆ 매출 상승으로 인한 인원 총원 25
◆ 수주/물량 증가 또는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인원 총원 23	
◆ 사업/분야 확장으로 인한 전문인력 총원 18	
◆ 퇴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총원 5	
◆ 수출 증가 기대, 선제적 투자로 인원채용 2	

* 매출액, 수출, 고용 각 증가 응답 기업 사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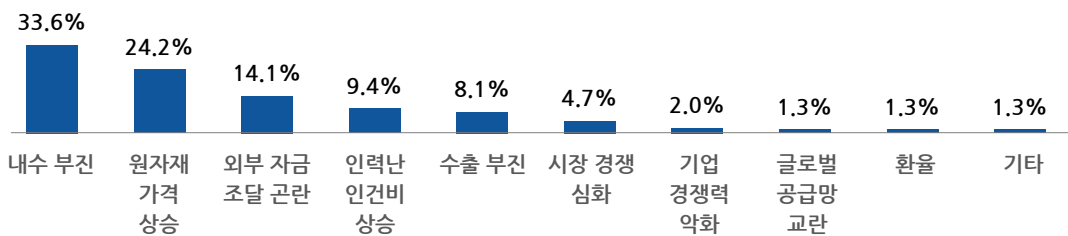
2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경영 여건 : 中企 48.5%가 경영 여건 악화

-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경영 여건**은 10곳 중 5곳 정도(48.5%)가 악화된 것으로 응답, 호전됐다는 응답은 16.3%에 불과함
 -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경영 여건이 호전됐다는 응답은 내수기업(11.6%) 보다는 수출기업(21.1%)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27.6%), 식료품(27.6%), 기타 제조(22.5%)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올해 **경영 여건이 악화된 이유**로는 ‘내수 부진’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24.2%), ‘외부 자금 조달 곤란’(14.1%), ‘인력난, 인건비 상승’(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올해 경영 여건이 악화된 이유로 ‘내수 부진’이라는 응답은 수출기업(30.9%) 보다는 내수기업(35.8%)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업종별로는 고무 플라스틱(62.5%), 섬유제품(42.9%)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올해 경영 여건이 악화된 이유 (N=149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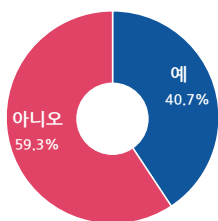
* 올해 경영 여건 악화 응답 업체 살계수

③ 기업경영 관련 규제 경험 및 강도 : 응답 중소기업 40.7%가 규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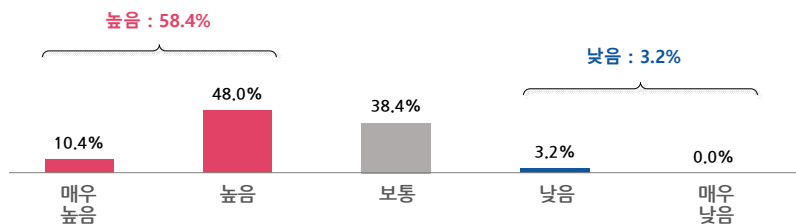
- 응답 기업의 **40.7%가 기업활동 중 규제 체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체감업체(N=125업체) 10곳 중 6곳 정도(58.4%)가 규제 강도가 높았다는 의견임
 - 기업활동 중 규제를 체감했다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로 100~300억 미만(48.6%) 업체, 내수기업(37.4%) 보다는 수출기업(4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성장단계별로 수출초보 보다는 수출강소 업체일수록 높고, 업종별로는 식료품(69.0%)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체감하는 기업경영 관련 규제의 강도가 높다는 응답은 내수기업(53.4%) 보다는 수출기업(62.7%)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장비, 섬유제품(각 100.0%), 정보처리(75.0%), 자동차(72.7%) 업종에서 특히 높음

기업경영 관련 규제 경험 및 강도 (정책 모니터링단, N=307업체)

기업경영 관련 규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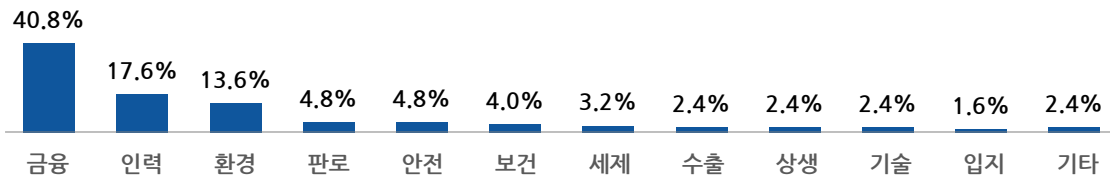
기업경영 관련 규제 강도 (N=125업체)*



* 기업활동 중 규제 경험 업체 사례수

- 한편, 규제 체감업체(N=125업체)를 대상으로 **체감한 규제 분야**를 알아본 결과, ‘금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인력’(17.6%), ‘환경’(13.6%), ‘판로’와 ‘안전’(각 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체감한 규제 분야에서 ‘금융’이라는 응답은 수출여부별로 수출기업(43.3%), 수출성장단계별로는 수출초보(10만불 미만)(50.0%) 업체, 업종별로는 전기장비(100.0%), 기타 서비스(80.0%), 정보처리(75.0%)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기업경영 관련 규제 체감 분야 (N=125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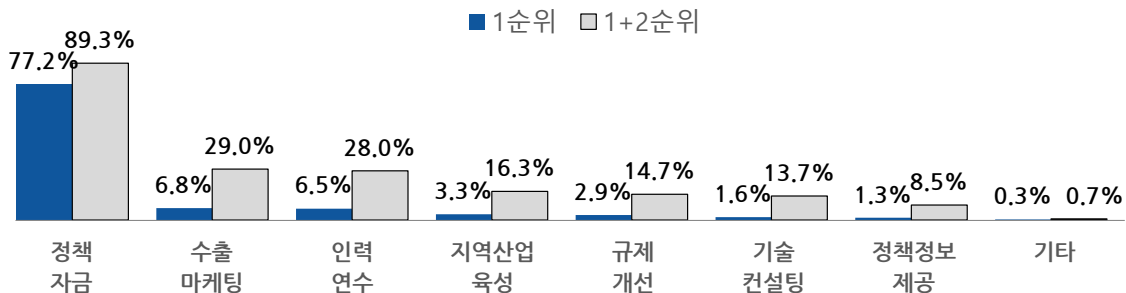


* 기업활동 중 규제 경험 업체 사례수

4 현재 필요한 정책 지원 : 中企 77.2%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

- **현재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1순위 기준 ‘정책자금’이 77.2%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는 ‘수출 마케팅’(6.8%), ‘인력 연수’(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필요한 정책 지원에 대해 1순위로 ‘정책 자금’이라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로 5억 미만(88.2%) 업체, 수출여부별로 수출기업(75.2%) 보다 내수기업(78.7%), 수출성장단계별로 수출유망(10~100만불 미만)(83.7%), 업종별로는 정보처리(90.9%), 기타 서비스 (87.0%), 화학제품(85.7%), 금속가공(82.4%)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현재 필요한 정책 지원 (정책 모니터링단, N=307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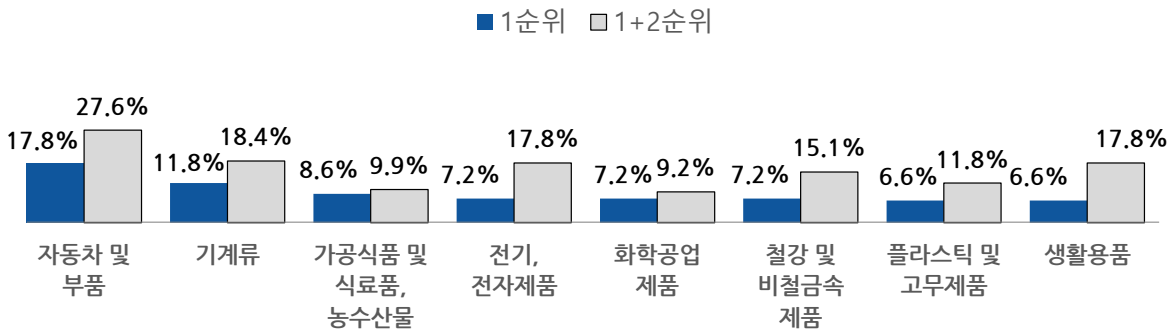


2 수출 동향 조사 결과

1 전반적인 수출 현황 : 주된 수출품목 이외 사업 품목 전환 필요성 체감 (44.7%)

- 中企 수출업체 **주된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이 17.8%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는 ‘기계류’(11.8%), ‘가공식품 및 식료품, 농수산물’(8.6%), ‘전기, 전자제품’(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된 수출품목 (수출업체, N=152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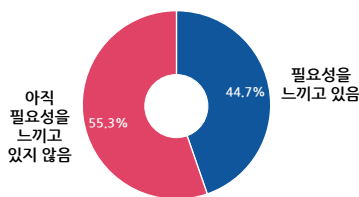


- 한편, **주된 수출품목 이외 사업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출 中企 업체의 44.7%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사업전환을 고려하는 품목으로는 ‘전기, 전자제품’이 19.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16.2%), ‘의료, 정밀·광학 기기’(10.3%), ‘생활용품’(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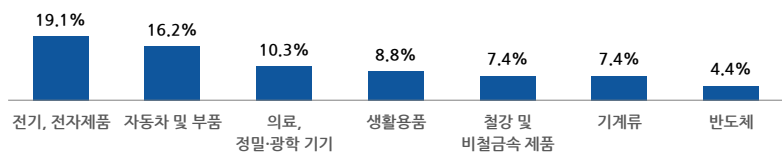
- 수출품목 이외 사업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50~100억 미만(53.1%)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유망(10~100만불 미만)(51.0%) 업체, 업종별로는 전자부품(71.4%), 고무 플라스틱(60.0%)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사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품목으로 ‘전기, 전자제품’이라는 응답은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유망(10~100만불 미만)(32.0%) 업체, 업종별로는 기계 장비(35.7%)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된 수출품목 이외 사업전환 필요성 및 고려 품목 (수출업체, N=152업체)

사업전환에 대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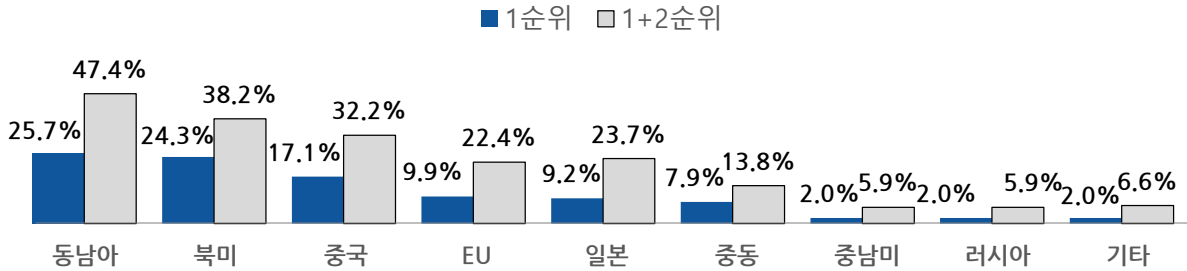
사업전환 고려 품목 (N=68업체)*



* 수출업체 중 사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 사례수

- 中企 수출업체 **주된 수출대상국**은 ‘동남아’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북미’(24.3%), ‘중국’(17.1%), ‘EU’(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된 수출대상국이 1순위로 동남아라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5~10억 미만(40.0%)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초보(10만불 미만)(33.9%) 업체, 업종별로는 정보처리(66.7%), 기계 장비(38.5%)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주된 수출대상국 (수출업체, N=152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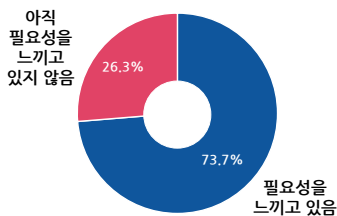


* 수출업체 중 사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 사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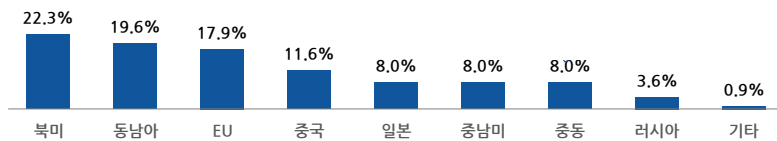
- 한편, 주된 수출대상국 이외 수출지역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中企 수출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수출지역 다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북미’가 22.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동남아’(19.6%), ‘EU’(17.9%), ‘중국’(11.6%) 등의 순이고, 일본, 중남미와 중동은 8.0% 수준임
 - 수출대상국 이외 수출지역 다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300억 이상(83.3%)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유망(10~100만불 미만)(77.6%) 업체, 업종별로는 식료품(92.9%)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수출지역 다변화를 고려하는 지역으로 ‘북미’라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300억 이상(40.0%) 업체, 수출성장단계별로는 수출강소(500만불 이상)(27.3%) 업체,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섬유제품(각 66.7%)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주된 수출대상국 이외 수출지역 다변화 필요성 및 고려 지역 (수출업체, N=152업체)

수출지역 다변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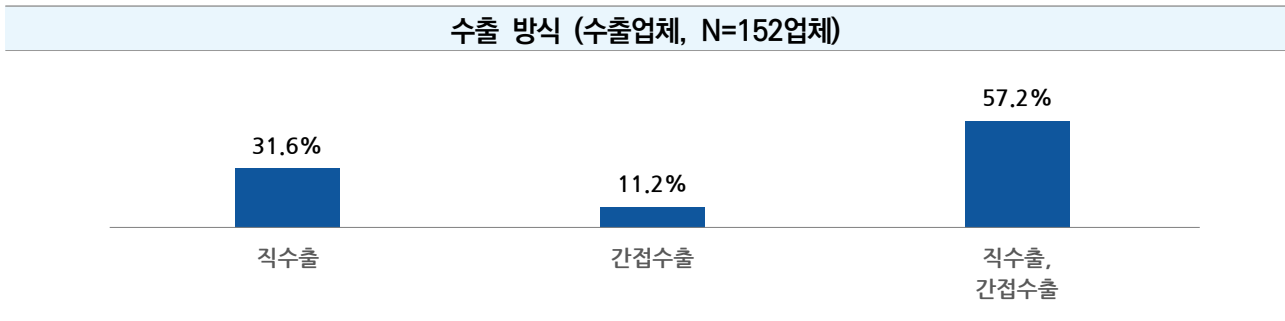


대상국으로 고려하는 지역 (N=68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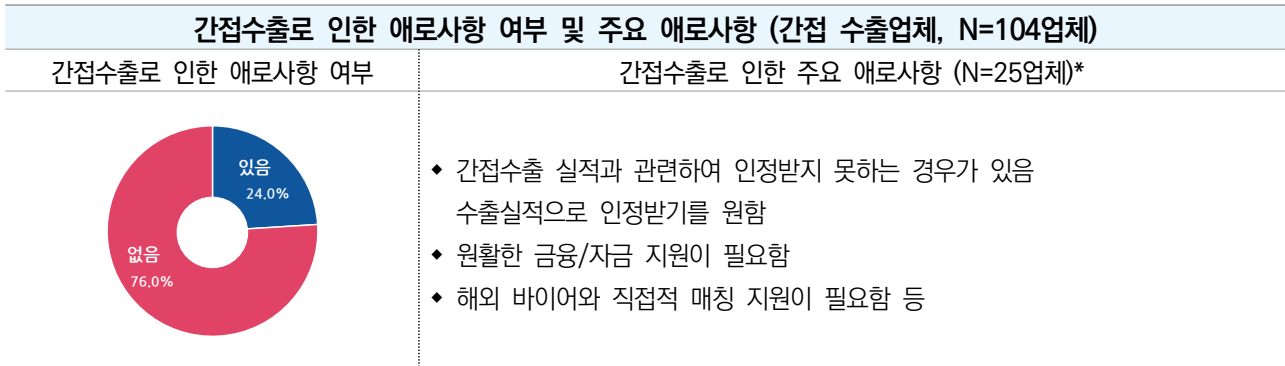


* 수출업체 중 수출지역 다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 사례수

- 기업별 수출 다변화 고려지역을 살펴보면, 수출초보기업(10만불 미만)은 'EU'(22.5%), 수출유망기업(10~100만불 미만)은 '동남아'(23.7%), 수출성장기업(100~500만불)은 '중국'(17.4%), 수출강소기업(500만불 이상)은 '북미'(27.3%), '일본'(18.2%), '중남미'(27.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中企 수출업체 **수출 방식**은 '직수출, 간접수출'이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직수출'(31.6%), '간접수출'(11.2%)의 순으로 나타남
 - 수출 방식으로 직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한다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로는 300억 이상(75.0%)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성장(100~500만불)(70.0%) 업체, 업종별로 화학제품(77.8%), 섬유제품(71.4%)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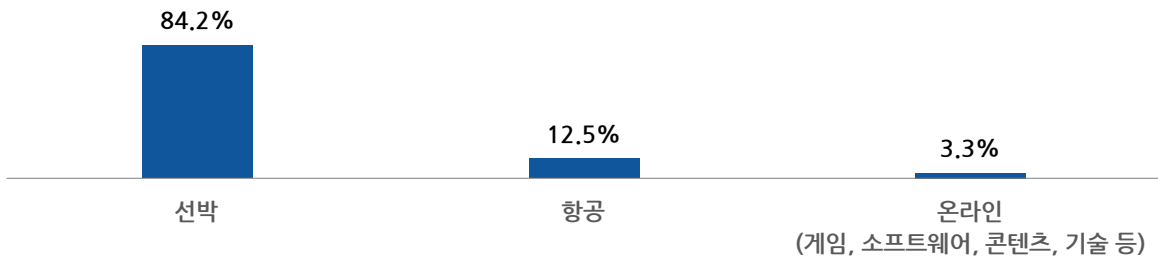
- 간접수출 업체 대상으로 **간접수출로 인한 애로사항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24.0%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며, **주요 애로사항**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금융/자금 지원과 해외 바이어와 직접 매칭 지원 필요' 등이 주로 언급됨
 - 간접수출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50~100억 미만(33.3%) 업종,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유망(10~100만불 미만)(38.9%) 업체, 업종별로는 고무 플라스틱(50.0%), 기계 장비(35.7%), 식료품(33.3%)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간접 수출업체 중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 사례수

- 中企 수출업체 주된 물류 이용 방식은 '선박'이 84.2%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는 '항공'(12.5%),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술 등)'(3.3%) 순임
 - 주된 물류 이용 방식으로 '선박'이라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로는 300억 이상(91.7%) 업체, 수출성장단계별로는 수출성장(100~500만불)(90.0%) 업체, 업종(중분류)별로 전기장비, 섬유제품(각 100.0%), 화학제품(94.4%), 자동차(94.1%)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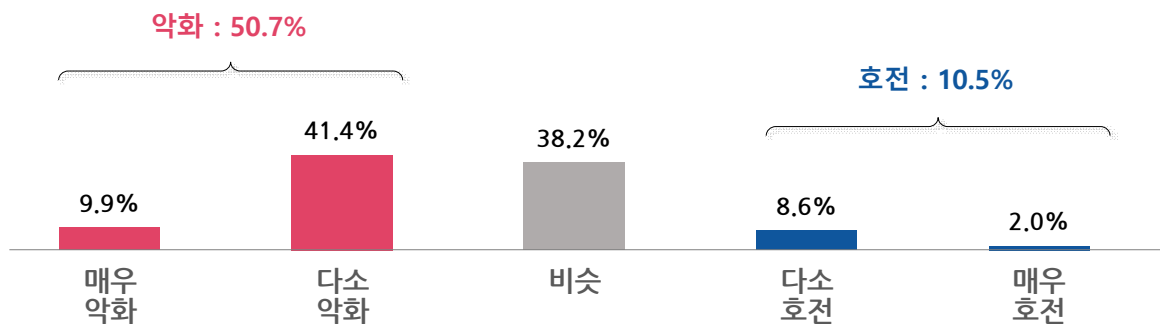
주된 물류 이용 방식 (수출업체, N=152업체)



②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 전반적인 수출 여건 체감 : 악화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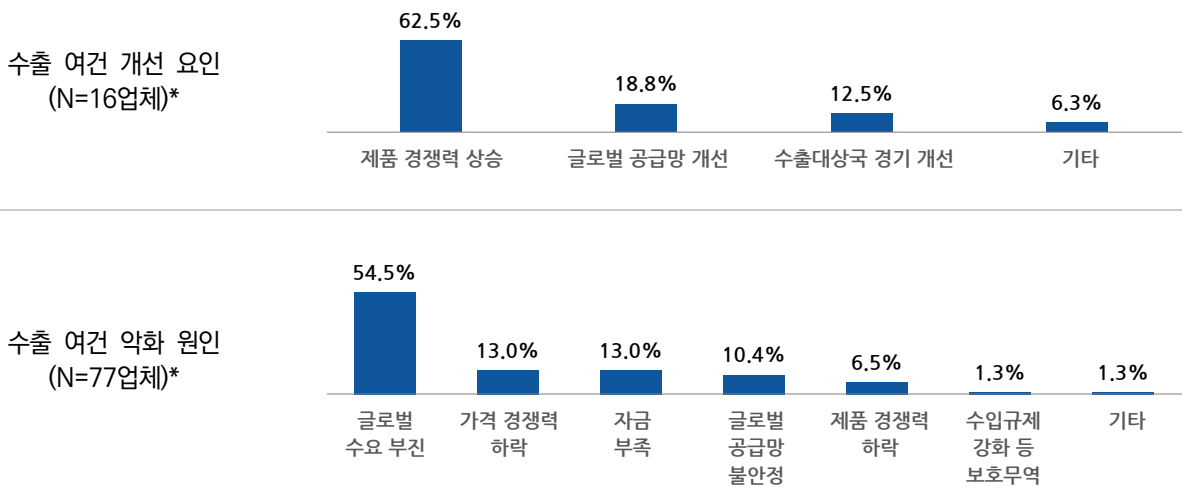
- 中企 수출업체 대상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 전반적인 수출 여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체의 절반 이상이 50.7%가 악화됐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호전됐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함
 -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인 체감 수출 여건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10~50억 미만(56.3%)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초보(10만불 미만)(55.4%) 업체, 업종별로는 전자부품(85.7%), 정기자재(66.7%)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 전반적인 수출 여건 체감 (수출업체, N=152업체)



- 전년 대비 **수출 여건 개선 원인**으로는 ‘제품 경쟁력 상승’(62.5%)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글로벌 공급망 개선’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수출 여건 악화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요 부진(수출대상국 경기 둔화)’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가격 경쟁력 하락’과 ‘자금 부족’(각 13.0%),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물류난 등)’(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출 여건 개선/악화 요인에서 ‘글로벌 공급망 개선’ 요인이 여전히 주요 이슈이나 부분적으로는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임
 - 수출 여건 악화 원인으로 ‘글로벌 수요 부진’이라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300억 이상(100.0%) 업체, 수출성장단계별로는 수출강소(500만불 이상)(100.0%) 업체, 업종별로는 전기장비, 섬유제품(각 100.0%)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수출 여건 개선 및 악화 요인 (수출 여건 개선/악화 각 응답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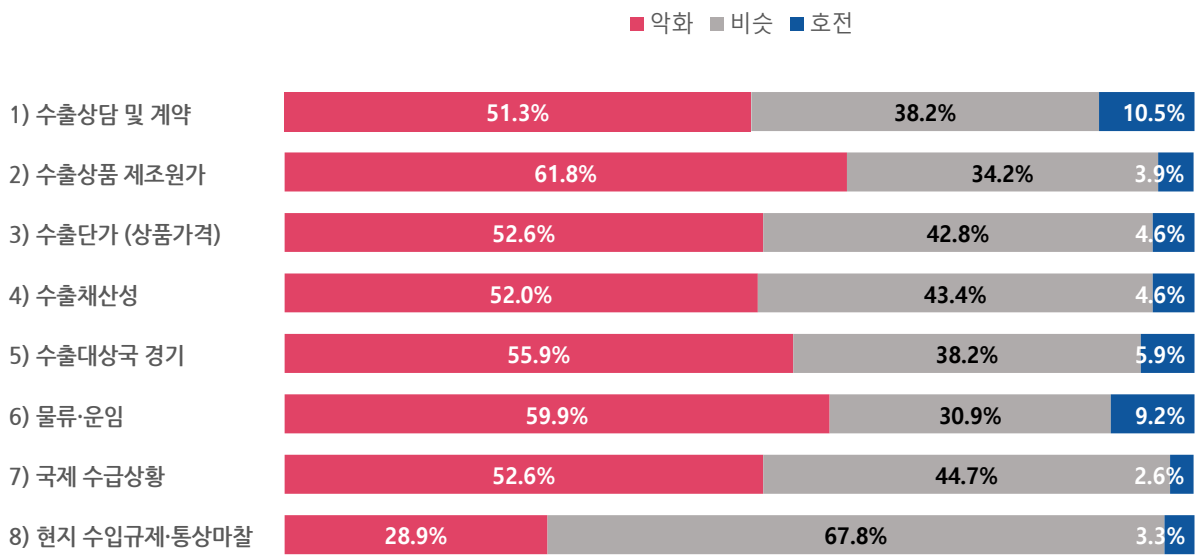
* 수출 여건 개선/악화 각 응답 업체 사례수

③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 수출 동향 체감 : 수출상품 제조원가 악화 (61.8%)

- 中企 수출업체 대상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 수출 동향 체감**에 대한 질문 결과, 전반적인 측면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가운데, ‘수출상품 제조원가’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물류·운임’(59.9%), ‘수출대상국 경기’(55.9%) 등의 순임. 다만, ‘현지 수입규제·통상마찰’ 측면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28.9%로 상대적으로 낮음
 - 수출상품 제조 원가에 대해 악화됐다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로는 5억 미만(75.0%)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유망(10~100만불 미만)(65.3%) 업체, 업종별로는 기타 서비스(83.3%), 금속가공(76.2%), 식료품(71.4%)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물류·운임에 대해 악화됐다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5~10억 미만(90.0%)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초보(10만불 미만)(71.4%) 업체, 업종별로는 기계 장비(76.9%), 금속가공(76.2%)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출 동향이 호전되었다는 응답은 ‘수출상담 및 계약’(10.5%), ‘물류·운임’(9.2%) 항목에서 미미하게 체감되고 있음
 - 수출상담 및 계약에 대해 호전됐다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로는 5억 미만(25.0%)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강소(500만불 이상)(13.3%) 업체, 업종별로는 섬유제품(21.4%), 고무 플라스틱(19.0%)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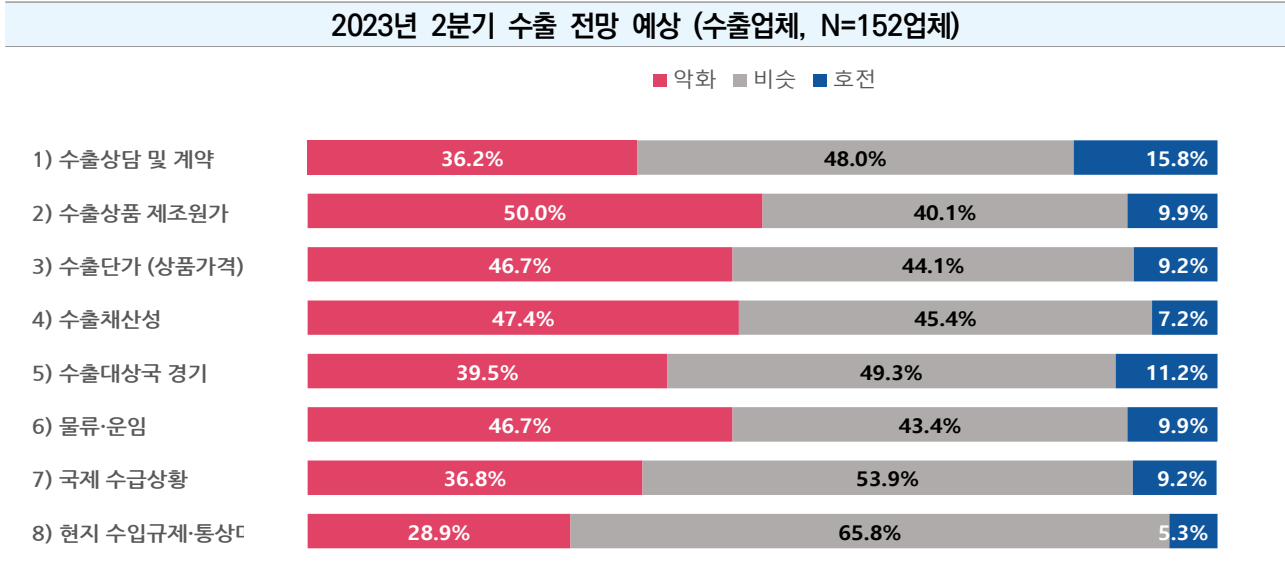
2023년 1분기 수출 동향 체감 (수출업체, N=152업체)



4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 수출 전망 예상 : 수출상담 및 계약 호전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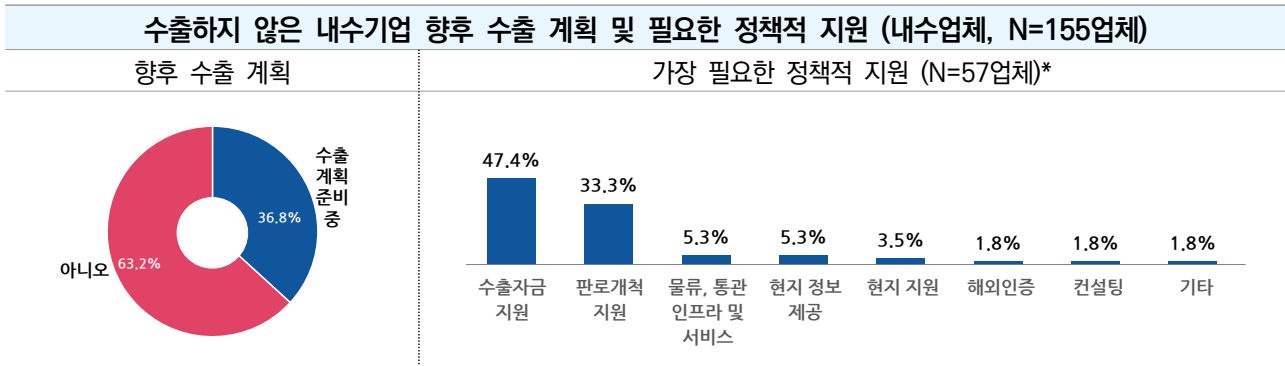
- 中企 수출업체 대상 2023년 2분기 수출 전망 예상에 대한 질문 결과,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수출상품 제조원가’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50.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수출채산성’(47.4%), ‘수출단가 (상품가격)’과 ‘물류·운임’(각 46.7%) 등의 순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음.
 - 수출상품 제조원가 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50~100억 미만(59.4%)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유망(10~100만불 미만)(57.1%) 업체, 업종별로 기타 서비스(66.7%), 기계장비(65.4%), 식료품(64.3%)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수출 전망이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은 ‘수출상담 및 계약’(15.8%), ‘수출 대상국 경기’(11.2%), ‘수출상품 제조원가’, ‘물류·운임’(각 9.2%) 순으로 미미하게 예상되고 있음

- 수출상담 및 계약 전망에 대한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5억 미만(37.5%)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초보(10만불 미만)(19.6%) 업체, 업종별로는 식료품(35.7%), 정보처리(33.3%)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 내수기업 향후 수출 계획 : 향후 수출 계획 및 준비 내수기업 (36.8%)

- **中企 내수업체 대상 향후 수출 계획**에 대해 알아본 결과, ‘수출 계획이 있거나 준비 중’ 업체는 36.8%로 나타남
 - 향후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는 매출액 구간별 5억 미만(55.6%)인 업체, 업종별로 섬유제품(57.1%), 기계장비, 전자품체(50.0%)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수출 계획/준비 중인 업체에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수출자금지원(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47.4%)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판로개척 지원(거래선 발굴, 마케팅, 수출 플랫폼 등)’(33.3%) 등을 많이 거론함
 -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수출자금 지원’이라는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10~50억 미만(56.5%) 업체, 업종별로 고무 플라스틱(100.0%)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내수업체 중 향후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 사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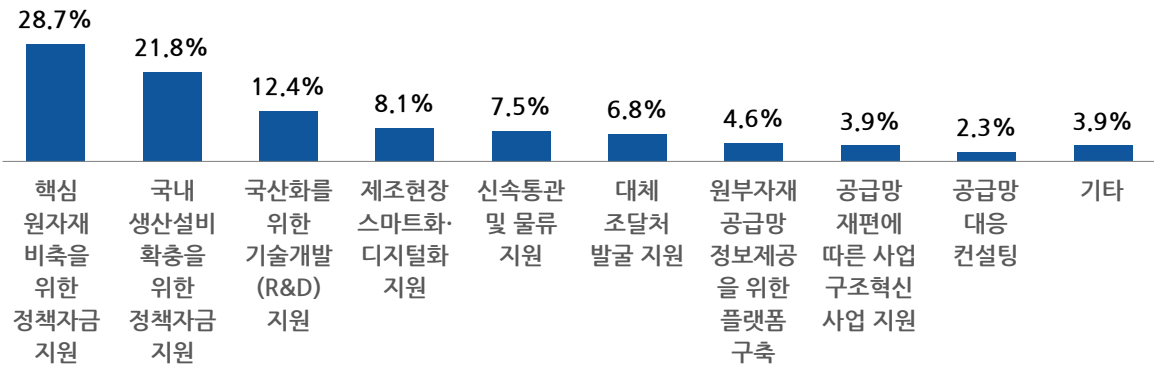
3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책 수요 조사 결과

1 中企 글로벌 공급망 대응에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 : 원자재 비축 자금 지원 28.7%

- 中企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에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로는 ‘핵심 원자재 비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국내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21.8%),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부 지원 정책에 ‘핵심 원자재 비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로는 300억 이상(42.1%) 업체, 수출기업(33.6%)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성장(100~500만불)(40.0%) 업체, 업종별로는 화학제품(42.9%)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 (정책 모니터링단, N=307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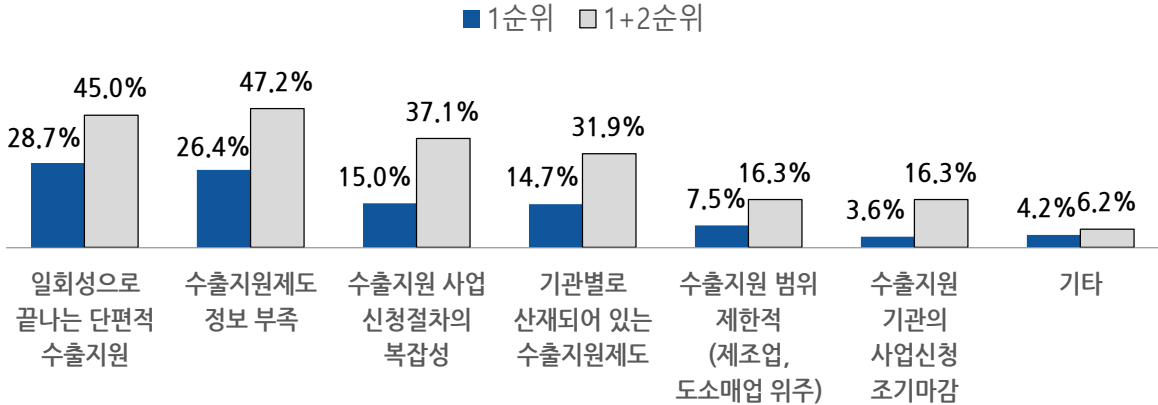
단위 : 전체 응답, %

구분	사례수	핵심 원자재 비축 정책자금 지원 (%)	국내 생산설비 확충 정책자금 지원 (%)	국산화 기술개발 (R&D) 지원 (%)	제조현장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	대체 조달처 발굴지원 (%)	원부자재 공급망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공급망 재편 따른 사업 구조혁신 사업지원 (%)	공급망 대응 컨설팅 (%)	
전체	307	28.7	21.8	12.4	8.1	7.5	6.8	4.6	3.9	2.3	
업종	자동차	29	27.6	17.2	6.9	13.8	10.3	3.4	10.3	0.0	6.9
	기계장비	48	25.0	27.1	16.7	8.3	2.1	10.4	4.2	4.2	0.0
	금속가공	51	33.3	25.5	9.8	5.9	0.0	5.9	7.8	2.0	2.0
	고무플라스틱	17	29.4	23.5	5.9	11.8	0.0	17.6	5.9	5.9	0.0
	전자부품	17	35.3	17.6	29.4	5.9	5.9	0.0	5.9	0.0	0.0
	전기장비	7	28.6	14.3	0.0	14.3	0.0	14.3	14.3	0.0	0.0
	화학제품	21	42.9	9.5	4.8	14.3	14.3	9.5	0.0	4.8	0.0
	식료품	29	31.0	20.7	6.9	3.4	13.8	10.3	3.4	6.9	0.0
	섬유제품	14	28.6	21.4	14.3	0.0	14.3	0.0	7.1	7.1	0.0
	정보처리	11	0.0	18.2	27.3	18.2	9.1	9.1	0.0	18.2	0.0
	기타 제조	40	22.5	30.0	17.5	10.0	17.5	2.5	0.0	0.0	0.0
기타 서비스	23	30.4	13.0	8.7	0.0	4.3	4.3	0.0	8.7	17.4	

② 정부 주관 수출지원정책 관련 애로사항 : 일회성/단편적 지원 28.7%

- 정부 주관 中企 수출지원정책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편적 수출지원’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수출지원제도 정보 부족’(26.4%), ‘수출지원 사업 신청절차의 복잡성’(15.0%) 등의 순이며, 종합적으로는(1+2순위) ‘수출지원제도 정보 부족’(47.2%)이 가장 많이 언급됨
 - 정부 주관 수출지원정책 관련 애로사항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편적 수출지원’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5억 미만(58.8%)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성장(100~500만불)(40.0%) 업체, 업종별로 화학제품(47.6%), 자동차, 식료품(각 37.9%)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수출지원정책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 (정책 모니터링단, N=307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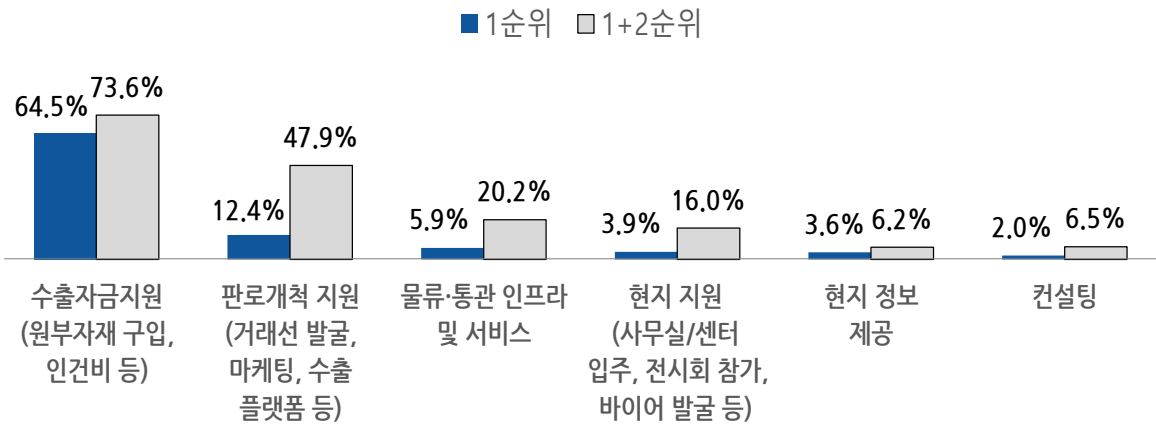
단위 : 전체 응답, %

구분 (1순위)	사례수	일회성 단편적 수출지원	수출 지원제도 정보부족	기관별 산재된 수출지원 제도	수출지원 사업 신청 절차 복잡성	수출지원 범위 제한적 (제조/도소매 위주)	수출지원 기관 사업신청 조기마감	기타	
전체	307	28.7	26.4	14.7	15.0	7.5	3.6	4.2	
업종	자동차	29	37.9	27.6	10.3	13.8	0.0	3.4	6.9
	기계장비	48	25.0	29.2	14.6	20.8	6.3	2.1	2.1
	금속가공	51	19.6	27.5	9.8	17.6	9.8	7.8	7.8
	고무플라스틱	17	35.3	23.5	5.9	29.4	5.9	0.0	0.0
	전자부품	17	29.4	23.5	11.8	23.5	0.0	5.9	5.9
	전기장비	7	14.3	57.1	14.3	0.0	0.0	0.0	14.3
	화학제품	21	47.6	9.5	19.0	9.5	4.8	9.5	0.0
	식료품	29	37.9	17.2	10.3	13.8	13.8	0.0	6.9
	섬유제품	14	28.6	21.4	42.9	7.1	0.0	0.0	0.0
	정보처리	11	18.2	27.3	9.1	9.1	36.4	0.0	0.0
기타 제조	40	27.5	27.5	25.0	7.5	7.5	2.5	2.5	
기타 서비스	23	21.7	39.1	8.7	13.0	8.7	4.3	4.3	

③ 中企 수출 확대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분야 : 수출자금지원 64.5%

- 中企 수출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로는 ‘수출자금지원(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판로개척 지원(거래선 발굴, 마케팅, 수출 플랫폼 등)’(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 소수 의견으로 물류·통관 인프라 및 서비스, 현지 지원, 현지 정보제공 등이 다음 순으로 제기됨
-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수출자금지원’ 응답은 매출액 구간별 100~300억 미만(73.6%) 업체, 수출기업(73.0%) 업체, 수출성장단계별 수출초보(10만불 미만)(76.8%) 업체, 업종별로 고무 플라스틱(82.4%)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 (정책 모니터링단, N=307업체)



단위 : 전체 응답, %

구분 (1순위)	사례수	수출자금 지원	판로개척 지원	물류·통관 인프라 서비스	현지 지원	현지 정보 제공	컨설팅	해외 인증	수출지원 범위 확대	온라인 수출 지원	수출전문 인력 매칭
전체	307	64.5	12.4	5.9	3.9	3.6	2.0	1.6	1.3	1.0	1.0
업종	자동차	29	58.6	10.3	6.9	6.9	3.4	3.4	3.4	0.0	0.0
	기계장비	48	70.8	16.7	4.2	2.1	2.1	0.0	4.2	0.0	0.0
	금속가공	51	68.6	13.7	5.9	0.0	0.0	3.9	0.0	0.0	2.0
	고무플라스틱	17	82.4	5.9	5.9	0.0	0.0	0.0	5.9	0.0	0.0
	전자부품	17	64.7	5.9	11.8	0.0	11.8	0.0	0.0	0.0	0.0
	전기장비	7	57.1	14.3	0.0	0.0	14.3	0.0	0.0	0.0	0.0
	화학제품	21	66.7	9.5	4.8	9.5	4.8	0.0	0.0	0.0	4.8
	식료품	29	58.6	6.9	10.3	6.9	10.3	3.4	0.0	0.0	0.0
	섬유제품	14	42.9	35.7	7.1	7.1	0.0	7.1	0.0	0.0	0.0
	정보처리	11	54.5	0.0	0.0	9.1	0.0	0.0	9.1	27.3	0.0
	기타 제조	40	65.0	15.0	7.5	2.5	2.5	0.0	0.0	2.5	0.0
기타 서비스	23	60.9	8.7	0.0	8.7	4.3	4.3	0.0	0.0	8.7	

4] 향후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 중소 수출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 추진 정책으로는 ‘기술개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금리인하, 금융지원,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이 주로 언급됨
 다음으로 ‘해외 바이어 발굴지원 및 매칭, 판로지원’, ‘다양한 수출 정보제공’, ‘수출대상국 현지 정보제공, 현지진출지원’ 등이 제기됨

향후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정책 모니터링단, N=307업체)

◆ (사업전환, 디지털화, 스마트공장 등) 기술개발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73
◆ 금리인하, 금융지원, 정책자금 지원 확대	68
◆ 해외 바이어 발굴지원 및 매칭, 판로지원	26
◆ 다양한 수출 정보제공	22
◆ 수출대상국 현지 정보제공, 현지진출지원	22
◆ 물류난 완화 정책 및 물류비 지원사업 강화	17
◆ 수출 업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 지원 (상담 등)	8
◆ 애로 접수 소통시스템 마련	5
◆ 수출 과정 간소화	4
◆ 디지털 산업 분야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 필요	2
◆ 규제개선	2
◆ 수입 원재료 가격 안정	2
◆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1
◆ 비전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1
◆ IT 기술 수출 창구 마련	1
◆ 간접수출도 수출입 증명서 발급	1
◆ 국가 간의 우호 관계 확보	1
◆ 소규모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1
◆ 수출보증서 지원	1
◆ 탄소배출저감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시설투자 지원금 확대	1
◆ 제조업체와 전문무역상사와 매칭	1
◆ 첫 수출실적 만들기 어려움, 상설전시장 마련하여 홍보 지원	1
◆ 해외전시회 참가비 지원	1
◆ 환율 안정화를 통한 원부자재 수급 단가의 변동 폭을 축소	1

03 | 정책적 시사점

1 중소기업 수출 여건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 '21년 동기 대비 '22년 4분기 中企 매출액, 수출, 고용 점진적 개선 과정이나, 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외부 자금 조달 곤란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 지속 체감

- 中企 '21년 동기 대비 '22년 4분기
매출액 변동 : 증가 40.1% > 감소 39.7% > 변화 없음 20.2%
수출 변동 : 감소 36.2% > 증가 34.2% > 변화 없음 29.6%
고용 변동 : 변화 없음 49.5% > 증가 27.7% > 감소 22.8%로 파악됨
-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경영 여건은 中企 10곳 중 5곳 정도(48.5%)가 악화된 것으로 응답, 악화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24.2%), '외부 자금 조달 곤란'(14.1%), '인력난, 인건비 상승'(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2분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원자재 조달을 위한 자금지원, 대체 조달처 발굴, 핵심원자재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인력 미스매칭 해소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규제 체감도 완화를 위한 규제 혁신 필요

- 中企 40.7%가 기업활동 중 규제 체감을 경험, 규제 체감업체 中企 10곳 중 6곳 정도(58.4%)가 규제 강도가 높았다고 체감
특히, '금융'(40.8%) > '인력'(17.6%) > '환경'(13.6%) > '판로'와 '안전'(각 4.8%) 등의 순으로 규제 체감도 높음
- 따라서, 규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 구간별로 100~300억 미만 업체,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 수출성장단계별 수출강소 업체와 업종별로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중소벤처기업 수출 동향 (수출 동향 조사 결과)

○ 中企 수출 품목 및 수출지역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 中企 수출업체 주된 수출 품목 이외 사업 품목 전환 필요성을 10곳 중 4곳 이상 (44.7%)이 느끼고 있으며, 또한 주된 수출대상국 이외 수출지역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 역시 中企 수출업체 10곳 중 7곳 이상(73.7%)이 필요하다는 판단
- 특히, ‘전기, 전자제품’(19.1%), ‘자동차 및 부품’(16.2%), ‘의료, 정밀·광학 기기’(10.3%) 분야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가 강하며, 수출대상국 고려 지역으로는 ‘북미’(22.3%), ‘동남아’(19.6%) ‘EU’(17.9%) 지역이 높고 ‘중국’은 11.6% ‘일본’과 ‘중남미’, ‘중동’은 8.0% 수준임
 - 한편, 수출지역 다변화를 고려하는 지역으로 ‘중동’이라는 응답은 인천/경기 소재(12.1%), 매출액 10~50억 미만(14.3%), 자동차(30.0%)와 전기장비(50.0%)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사업전환을 위해 中企 입장에서 어려운 지점을 해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발굴과 적극적 적용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품목별, 업종별 유망 해외 시장을 발굴하고 정보제공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글로벌 수요 부진 및 채산성 하락에 따른 中企 수출 여건 악화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中企 수출업체 1분기 수출 여건은 절반 이상이 50.7%가 악화되었다는 응답, 호전 됐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함
- 특히, 수출 여건 악화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요 부진(수출대상국 경기 둔화)’이 54.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가격 경쟁력 하락’과 ‘자금 부족’(각 13.0%),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물류난 등)’(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대상국 내 우량 바이어 발굴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수요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高부가가치 수출 품목 개발(R&D),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조현장 스마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中企 절반 이상이 1분기 수출 전반에서 악화를 체감함에 따라, 2분기 호전 전환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 지원 필요**

- 中企 수출업체 1분기 수출 동향 체감은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며, 특히 ‘수출상품 제조원가’(61.8%)와 ‘물류·운임’(59.9%), ‘수출대상국 경기’(55.9%) 등의 측면에서 악화 체감 강도가 높음
- 또한, 中企 수출업체 2분기 수출 전망 예상 역시 ‘수출상품 제조원가’(50.0%), ‘수출채산성’(47.4%), ‘수출단가(상품가격)’과 ‘물류·운임’(각 46.7%) 등의 순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음
다만, 수출 전망이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은 ‘수출상담 및 계약’(15.8%), ‘수출대상국 경기’(11.2%), ‘수출상품 제조원가’(9.9%), ‘물류·운임’(각 9.2%) 등의 측면에서 미미하게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中企 수출 여건 강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적 상황을 점검하고 호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개발해야 할 정책적 지원으로 ‘수출자금지원(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판로개척 지원(거래선 발굴, 마케팅, 수출 플랫폼 등)’, 물류·운임, 통관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의 정책적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중소벤처기업 정책 수요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책 수요 조사 결과)

○ **중진공의 中企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 사업은 ‘핵심 원자재 비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정책 수립 필요**

- 中企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로는 ‘핵심 원자재 비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국내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21.8%),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을 우선 수립할 계획이 요구되며 특히, ‘핵심 원자재 비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정책은 ‘화학제품(42.9%)’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정책은 ‘기계장비’(27.1%), ‘기타 제조업’(30.0%) 업종을 중심으로,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R&D) 지원’ 정책은 ‘전자제품’(29.4%), ‘정보처리’(27.3%) 업종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정책적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주관 수출지원정책 관련 ‘일회성, 단편적 수출지원’ 지양과 ‘수출지원제도 정보 부족’ 애로사항 해소 필요

- 정부 주관 中企 수출지원정책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편적 수출지원’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수출지원제도 정보 부족’(26.4%), ‘수출지원사업 신청절차의 복잡성’(15.0%) 등의 순이며, 종합적으로는 (1+2순위) ‘수출지원제도 정보 부족’(47.2%)이 가장 높음이 언급됨
- 따라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편적 수출지원’ 애로사항 관련하여 수출단계별·지속적 연계 지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산재되어 있는 각 정부부처의 수출지원사업 관련 中基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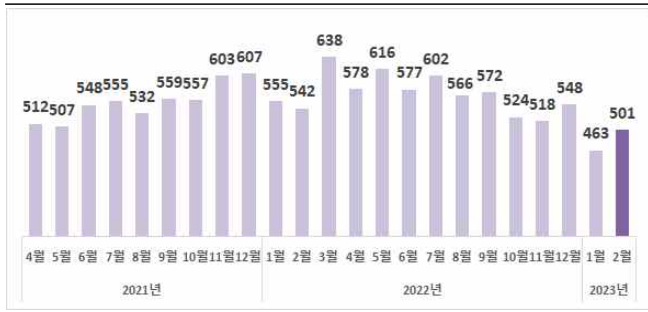
산업별 수출동향 및 현장 사례

1 '23년 국내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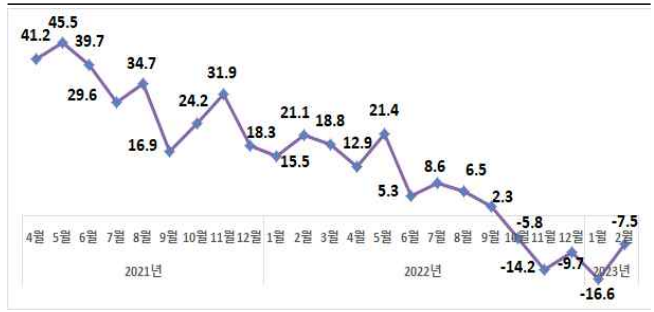
1 수출입 동향

- (수출)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542억 달러) Δ 7.5% 감소한 501.0억 달러
 - 전년동월대비 월별 수출 증감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월별 수출액 추이(억 달러) 】



【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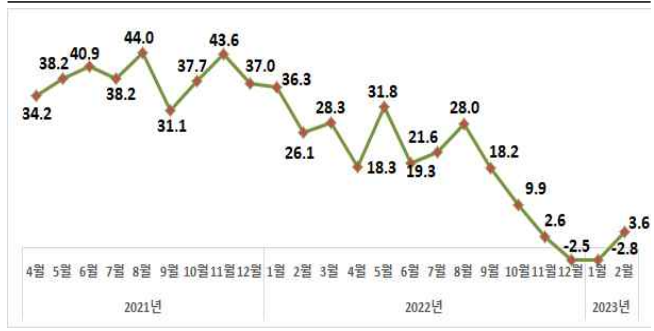


- (수입) 2월 수입은 전년동월비(535억 달러) +3.6% 증가한 554.0억 달러

【 월별 수입액 추이(억 달러) 】



【 월별 수입 증감률 추이(%) 】



- (무역수지) 2월 무역수지는 Δ 53.0억 달러 적자

【 2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백만 달러, %, 관세청) 】

구 분	2022년			2023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수 출	54,156(+21.1)	51,771(Δ 14.2)	54,849(Δ 9.7)	46,276(Δ 16.6)	50,100(Δ7.5)
수 입	53,482(+26.1)	58,848(+2.6)	59,623(Δ 2.5)	58,927(Δ 2.8)	55,404(+3.6)
무역수지	+674	Δ 7,076	Δ 4,774	Δ 12,651	Δ5,305

2 중소기업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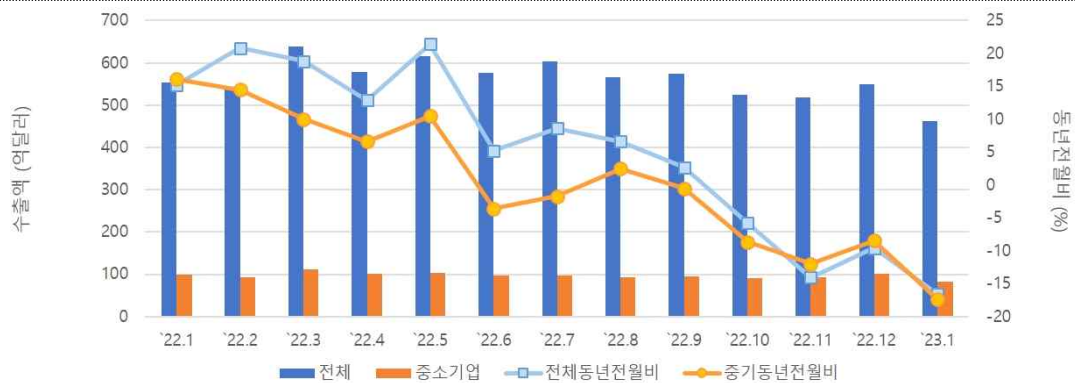
• '23년 1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81.9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 확대

* 중소기업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감률(%) : ('22.11) -12.1 → (12) -8.7 → ('23.1) -17.4

【 국내 중소기업 수출액 추이 】

(억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2년			2023년
	1월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 체	480.1 (11.4)	553.2 (15.2)	524.4 (△5.8)	518.1 (△14.1)	549.3 (△9.6)	462.8 (△16.6)
중소기업	85.2 (14.5)	98.9 (16.1)	90.6 (△8.7)	91.8 (△12.0)	101.6 (△8.5)	81.9 (△17.4)



-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70.6%)는 호조세를 지속하였으나, 반도체(△18.1%), 플라스틱제품(△18.8%), 합성수지(△28.0%), 기타기계류(△50.7%) 등에서 전반적으로 부진
-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은 홍콩(△30.9%), 중국(△30.2%), 베트남(△26.6%), 미국(△16.7%), 일본(△12.6%) 등 주요국 전반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대상국별 국내 중소기업 수출액 추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연간(억달러, %)	1월(억달러, %)	연간(억달러, %)	1월(억달러, %)	1월(억달러, %)	
전 체	6,444.0 (25.7)	480.1 (11.4)	6,835.8 (6.1)	554.6 (15.5)	462.8 (△16.6)	
중소기업	1,154.8 (14.7)	84.0 (13.0)	1,174.1 (5.7)	99.1 (17.9)	81.9 (△17.4)	
국가별	중국	238.9 (5.1)	17.3 (18.8)	219.3 (△8.2)	17.0 (△1.8)	11.8 (△30.2)
	미국	146.8 (14.1)	9.9 (5.6)	171.0 (16.5)	15.3 (54.2)	12.7 (△16.7)
	베트남	113.2 (14.8)	8.0 (△1.6)	112.4 (△0.7)	9.5 (18.3)	6.9 (△26.6)
	일본	107.0 (12.7)	8.4 (5.2)	109.3 (2.1)	8.8 (△6.6)	8.3 (△12.6)
	홍콩	36.8 (7.9)	2.6 (15.2)	30.9 (△15.9)	2.6 (1.7)	1.8 (△30.9)

3 품목별 수출 동향 및 현장 사례

■ 자동차

- **(완성차)** SUV·친환경차 등 高부가가치 차량의 수출비중 확대에 따른 단가 상승세와 함께 신차 수출 본격화 및 생산차질 완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수출액 47.1% 상승 및 8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자동차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22.2) 38.1(+8.1%) → ('23.2) 56.0(+47.1%)

* 2.1~25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美) 20.9(+62.8%), (EU) 7.4(+29.7%), (중동) 4.3(+54.0%)

- **(친환경차)** '23.2월 친환경차(승용기준) 수출량은 전년동월 대비 61.6% 증가한 6.3만 대이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83.4% 증가한 20.2억 달러를 기록하여 월간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

- **(차부품)** 최대시장인 북미지역 內 자동차 총 판매 및 국산차 판매량 증가가 호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인도·아세안 등 신흥시장의 약진 등에 힘입어 '22.12월 이후 2개월 만에 반등하며 수출 증가

* 차부품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22.2) 17.8(△1.4%) → ('23.2) 20.2(+13.3%)

* 2.1~25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美) 6.0(+9.8%), (EU) 3.3(+19.9%), (亞) 1.1(+17.8%)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대구) [우강**, 자동차부품]** 조향, 제동 장치 제조기업으로, 주 거래처의 경영악화에 따른 해외 수출 외주물량 축소에 따라 수출이 '22년 3월부터 끊긴 상황임. 이에 자구적 노력으로 수소차 관련 부품, 해외 신규거래처 발굴을 통한 수출 재개를 추진 중임.
- **(경북동부) [(주)선****, 자동차 부품]** 자동차부품 사출성형 업체로 고객사로부터 원소재를 사급 받아 사출 후 납품하고 있음.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로 경량화와 원가절감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제조함에 따라 금년 제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경북남부) [대*****,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헤드램프 광원 모듈, 내연기관용 엔진부품 제조 업체로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전기차 구동모터 부품 개발 중에 있으며 '24년부터 연간 10만개 이상 수주가 예상됨.
- **(부산) [(주)모**, 자동차 부품]** 내연차, 전기차 차동기어, 밸브 등 부품제조업체로 전기차 시장 본격 개황과 전기차 라인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차동기어의 납품이 최근 3년간 연간누적평균 30.6%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울산) [(주)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과 수소, 전기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최근 울산TP 등과 협업하여 소형전기버스 기반 자율주행 차량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금년도 자율주행 버스 및 로보택시 제작 발주 증가로 매출 증가세가 예상됨.
- **(경남) [(주)모**,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로, 충전기 관련 특허와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한 충전기 제조 기술, 충전 스테이션 운영 최적화 솔루션을 보유하여 금년 3월 미국 LOOP Gloval社와 연간 3억 달러 규모(3년간 1조)의 수출계약을 체결
- **(경남동부) [성***, 차량용 허브베어링]** 차량용 허브베어링 제조기업으로 국내 거래처를 통한 간접수출 방식으로 최종 납품되고 있음. 자동화설비를 활용한 고효율 생산방식을 강점으로 신규 아이템 생산을 위한 ICT 기반 신규설비 도입이 완료되면 매출 성장이 예상됨.
- **(광주) [(주)씨**, 자동차용 시트 수출]** 자동차용 시트 및 사출성형품 제조업체로 '23년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경기하락을 예상 중. '23년에는 전기차 배터리셀 케이스 생산을 신규 수주하여 생산라인 구축 등을 위한 설비투자를 진행 중임.
- **(전남) [(주)에***, e-모빌리티]** 농업용 초소형 전기차 제조업체로 지자체 보조금을 기반으로 농가에 판매 중으로 '23.2월 베트남에서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부품수출 및 기술이전을 통해 교류 확대 예정. '23.4월 테스트 이후, 2년간 600대 수출을 계획하고 있음.

■ 반도체

- 기준금리 인상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IT시장 둔화되는 등 주요 생산업계의 재고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출하량이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로 고속성장한 비대면 경제의 리오프닝에 따른 부진* 등으로 수출 감소

* PC 비대면 수요 감소, 모바일 교체주기 연장, 서버 빅테크기업 투자 연기 등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22.2) 103.7(+23.8%) → ('23.2) 59.6(△42.5%)

* 2.1~25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中) 23.5(△39.0%), (亞) 13.5(△35.7%), (美) 1.4(△74.0%)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경기) [(주)투****, 반도체 · OLED 검사장비]** 반도체 · OLED 검사장비 제조기업으로, 반도체 재고 증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른 반도체 산업경기 하락에도, 자가 사업장 확보 · 신규 고용 등 투자를 통해 극복 계획
- **(경기동부) [(주)라**, 반도체 설계]**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 팹리스 기업. '23년 스마트안경 부문 100억원, 자동차 HUD 부문 70억원 가량 수주를 확보하여 큰 폭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며, '23년 상장 예정.
- **(경기동부) [(주)사****, 반도체 설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집적회로(DDI) 전문 팹리스 기업임. 경쟁사 대비 약 33% 소비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제품 설계 기술을 이용해 납품하고 있음. '23년 LG와 계약 예정으로 매출액 약 330억원이 예상됨

- **(경기서부) [(주)씨****, 반도체PCB]** 국내스마트폰 PCB 제조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사업 철수 또는 생산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매출이 50% 가량 감소하였으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업재편,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신규 진출 등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을 회복 계획 중
- **(경기남부) [대*** (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로 반도체 산업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차전지 분야 사업을 확장하여 거래처를 확보하였고, 이차전지 매출은 전체 매출액 중 약 30% 가량으로 사업 안정화 단계로 진입함.
- **(경북) [(주)코*****, 반도체 부품]** 반도체 에칭장비용 실리콘 소모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Si(실리콘) 전극의 국산화 및 양산시스템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거래처를 통해 삼성전자(주)로 납품되며, 인텔(중국대련공장) 최초 양산 적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함.
- **(부산동부) [(주)더***, 반도체 부품]** 반도체 생산용 고순도 스테인레스 배관 제조업체로 해외로 스테인레스 파이프 OEM 수출중이며 바이오제약품 생산용 고청정 튜브, 피팅류 등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지분투자, 협력사 신규 등록 등을 통해 매출 신장 계획.

■ 이차전지

- 글로벌 배터리시장 확장 속, 성장세를 견인 중인 전기차배터리용 리튬이온축전지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3개월 연속 증가 및 역대 2월 최고실적 기록
 - * 이차전지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22.2) 6.9(+10.7%) → ('23.2) 8.7(+25.1%)
 - * 리튬가격 추이(\$/t) : ('22.12) 76,600 → ('23.1) 66,910 → ('23.2 初) 63,610
 - * 2.1~25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美) 2.9(+42.3%), (EU) 2.0(△0.7%), (日) 0.3(+29.4%)
-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방지법), 유럽의 CRMA(핵심원자재법)에 따른 리튬·니켈 등의 핵심 원료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전남동부) [(주)플**, 이차전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밸브류 제작기업으로, 이차전지 주요부품인 동박(Copper foil)을 제조하는 동박제박기를 개발 및 생산하여 수출 진행중임.
 - 전기자동차 수요의 급증으로 이차전지 부품인 동박 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에 있으며, 동박제작 업체인 SK넥실리스와 말레이시아 공장 납품 계약 진행하였음

■ 바이오헬스

- 바이오시밀러와 위탁생산(CMO) 관련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엔데믹 정착에 따라 백신·진단키트의 급감세가 지속되며, 높은 기저효과에 의해 전년 동월비 수출 32.1% 감소

* 바이오헬스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22.2) 15.8(+24.2%) → ('23.2) 10.7(△32.1%)

* 2.1~25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美) 1.7(△41.4%), (EU) 2.5(△4.7%), (亞) 0.8(△37.3%)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강원) [제***](주), 의약품** 보툴리눔 독신(보톡스) 제제 개발 및 제조 기업으로 '22.10월 KGMP 승인 및 수출품목 허가를 받아, '22.11월부터 해외 제약사에 납품을 시작하였음. 금년 수출 계약이 완료되었고 초도물량에 대한 시장반응이 양호함
- **(제주) [(주)로**],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로 약 11개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 및 중국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신규 수출국가를 다변화 하여 금년도는 매출 및 수출이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물류비용이 증가 하여 원가상승에 따른 애로가 예상됨.

■ 일반기계

- 주요국 친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히트펌프 수출 증가, 중동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기록

* 中 제조업 PMI : ('22.8) 49.4 → (9) 50.1 → (10) 49.2 → (11) 48.0 → (12) 47.0 → ('23.1) 50.1

* 美 제조업 PMI : ('22.7~8) 52.8 → (9) 50.9 → (10) 50.2 → (11) 49.0 → (12) 48.4 → ('23.1) 47.4

* 일반기계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22.2) 39.3(+6.0%) → ('23.2) 44.5(+13.0%)

* 2.1~25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美) 8.8(+11.8%), (EU) 7.0(+34.1%), (중동) 1.8(+17.1%)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강원) [(주)에*****], 유공압 부품** 산업용 유공압 씰 제조 기업으로 '18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패키지 및 부품을 제조하여 아마하 등에 납품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남 개조차량 특구사업'에 배터리 부문 참여기업 선정('22년), '모듈 배터리 시스템(배터리 직·병렬 연결)' 개발 등에 힘입은 기업 성장이 기대됨.
- **(충북북부) [아*****](주), PCB 조립품** 수송용 이동장치(엘리베이터, 철도차량)의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SMD(표면 실장 장치) 라인을 증설하여 매출이 상승 중이며 현대엘리베이터(주)와 부분 OEM제조 진행 예정에 따라 전년 대비 30%이상 증가 예상됨

■ 조선

- 경기둔화와 고금리의 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여건 악화로부터 이어진 해운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10.7% 감소
 - * 클락슨 선가지수 : ('19.12) 129.8 → ('20.12) 125.6 → ('21.12) 154.2 → ('22.12) 161.8
 - * 선박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22.2) 17.3(+15.8%) → ('23.2) 15.5(△10.7%)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의해 신조선에만 적용되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현재 운항 선박까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 *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 : 1톤의 화물을 1마일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선박의 제원을 활용하여 사전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
 - * 탄소집약도지수(CII) :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연료사용량, 운항 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부산) [(주)마**, 조선기자재]** 선박 및 플랜트용 열교환기 제조업체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영향과 운임/선가 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해운사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수주가 확대되었고, '22년 전세계 신조발주량 기준 점유 2위(점유율 38%)를 기록하는 등 최근 조선업황 회복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연간누적평균(CAGR) 30.6%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경기둔화 조짐에 따른 발주 축소에 대한 우려가 상존.

■ 철강

- 주요업계가 침체된 수출시장에 대응하여 내수공급에 주력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철강가격 약세(14.3% 감소)가 크게 작용하며 전년동월비 9.8% 수출 감소
 - * 철강재 수출단가(\$/톤) : ('22.2) 1,300 → (9) 1,198 → (12) 1,146 → ('23.2°) 1,137(△14.3%)
 - * 철강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22.2) 33.0(+39.5%) → ('23.2) 29.7(△9.8%)
 - * 2.1~25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美) 3.0(△2.0%), (亞) 4.0(△13.0%), (EU) 4.2(+3.1%)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광주) [삼부**(주), 철근 정밀가공]** 건축·토목구조물용 철근을 정밀가공하는 업체로 최근 부동산 규제 및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건설 경기 어려움이 예상되나, 대형건설사와의 수주 및 재개발지역 공사 등으로 매출 증가 예상됨.

2 주요 통상 이슈

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23.3)

-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
 -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적용조건(IRA Section 13401)으로 인해 자동차 및 이차 전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IRA Section 13401) 〉

- ① 최종 조립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전기차('22.8월부터 적용)
- ② 전기차 탑재 배터리에 내재된 핵심광물이 일정 비율(40~80%) 이상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처리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인 경우('23.1월부터 적용)
- ③ 전기차 탑재 배터리 부품 중 일정 비율(50~10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23.1월부터 적용)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률(안) 잠정 합의('22.12)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 적용 대상 품목에는 기존 5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 수소를 추가한 6대 품목이 포함되며 배출량 보고 의무 발생('23.10) 후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인증서 구매의무가 본격 시행될 예정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서울북부) [(주)***러스, 건축패널]** 폐섬유를 업사이클한 실내 마감 패널 제조업체로 조달청 혁신 제품 및 우수제품(23년), 녹색기술 인증(21년) 등 친환경 제품으로 지정되어 다수의 업체에 납품 예정으로 최근 자가 공장 확보하여 일관 양산 체계 구축, 생산량 상향 예상
- **(전북서부) [(주)대흥***, CCUS]**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이용해 액화탄산가스 형태로 저장하는 친환경 제조 기술 업체로 연간 3만 5,000톤 규모의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하여 중장비, 선박 등 산업체에 공급하고 친환경 하우스 재배를 위한 원료가스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 중.
 - 전라북도·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을 맺어 새만금 산단 2공구에 액화탄산가스 공장을 세웠으며, 금년 초부터 본격 가동하여 매출액 증대 및 신규 고용 증가 예상.

③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CRMA) 초안 발표(23.3)

-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①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②원자재 확보 방안, ③공급망 리스크 관리, ④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핵심원자재법 초안 발표
 -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업계에 미칠 위기·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모색 필요

④ 한-이스라엘 FTA 발효(22.12)

- 이스라엘은 미주, 유럽에 집중된 무역구조를 다변화하고자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였으며, 한국은 이스라엘이 아시아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
- 양국은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사실상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수입액 기준 이스라엘의 관세 철폐 수준은 100.0%, 한국은 99.9%, 품목수 기준 이스라엘은 95.1%, 한국은 95.3%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
 - 對이스라엘 수출 1위 품목은 자동차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합성수지, 석유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순

⑤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규정 발표(23.3)

- 미국은 반도체 R&D 및 제조,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세액 공제 내용을 담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of 2022)’ 발효(22.8)
- 美 상무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우려국*에 대한 투자 및 생산시설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규정 발표(23.3)
 - *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foreign countries of concern)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규정〉

- ① 향후 10년간 우려국 내에서 **첨단반도체** 시설의 증설 시 생산능력은 최대 5%, 10만불 미만의 거래(transaction)로 제한
- ② **범용반도체** 생산시설 증설의 경우, 생산국 내에서 85% 이상이 소비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까지 생산시설 확장 인정
-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반도체 제품에 대해 외국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 라이선싱 제한

참고문헌



- 2023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3.3.20.)
- KOSI 중소기업 동향 2023년 2월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2.)
- TRADE BRIEF 2호 수출기업의 2023년 경영환경 전망 (한국무역협회, 2023.1.)
- TRADE BRIEF 5호 최근 수출입 특징 및 상반기 수출 여건 (한국무역협회, 2023.2.)
-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3.3.1.)
- 해운·조선업 2022년 및 2022 4분기 동향과 2023년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2023.1.)
- 통상이슈브리프(한-이스라엘 FTA체결 효과) (한국무역협회, 2022.12)
- 이슈와 논점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2.)
- 유럽연합(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023.3.17.)
- KIET 산업경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산업연구원, 2022.9.)
- 2022년 국내 조선업,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2023.1.)



발행인 김학도
편집인 규제정책연구실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52851)
 전화 : 055-751-9723, 팩스 : 055-751-9411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